

변리안

: 한국어로 변화라는 뜻의 태극어



12월, 10기 태극팀은 변화의 연속이었다. 자 어디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어떤 **벌리안**?

벌리안 1. Wat Pao Sam Ka와의 갑작스런 작별

벌리안 2. Coordinator 변경

벌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벌리안** 시도

벌리안 4. Chiang Rai Visa Trip

벌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벌리안 6. 우리들의 **벌리안**

벌외. 우리가 태국에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1. 작별



별리안 1. Wat Pao Sam Ka와의 갑작스런 작별

(1) Wat Pao Sam Ka 학교와 작별

11월 4일부터 매주 3일간 학교에서 한국인 자원활동가로 선생님을 했던 우리는 12월 5일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학교를 변경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이유 첫째는 학교의 12월 일정상 우리를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보기에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단 애들과 놀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피폐는 우리에게 이 학교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갈 것인지 결정권을 주었다.

우리는 회의 끝에 새로운 학교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던 점은 개선해보고 선생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보기 위해서였다.

결국 12월 9일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 작별인사를 했다. 아쉬웠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간다는 마음에 무겁고 분하기도 했다.



벨리안 1. Wat Pao Sam Ka와의 갑작스런 작별



(2) Wat Pao Sam Ka 학교와 작별에 대한 우리의 생각

Ton Yong



우리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의 한계와 학교 측의 큰 기대감의 차이가 컸다. 사실 난 이런 측면들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아쉬움이 든다. 학교 아이들과 친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홈스테이 가족과의 이별이 너무 아쉬웠다.

Ton Phai



이유가 어떻게 됐든 전 학교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 지역과 헤어지는 것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Host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다.

Ton Khun



바꾸어야만 하지도 않았고 정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야기도 없이 코디는 떠난지 오래란 사실까지 정말 이 곳에 있기 싫은 순간이었다. 도대체 이것을 위해 "Friends of Asia"를 외쳤는가... 실망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Host 가족을 다시 만난 지금, 그 무엇보다도 반가울 수 없던 시간이었다.

Dok Khem



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이 가지는 기대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잘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홈스테이였다. 홈스테이 가족 아이라 엄마랑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것 저것 할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다는 것에 아쉬워서 또 미안해서 눈물도 많이 났던 것 같다.



벨리안 1. Wat Pao Sam Ka와의 갑작스런 작별

(3) Wat Pao Sam Ka Home-Stay와 작별

12월 9일, 11월 한 달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Home-Stay Host Family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헤어지는 이유를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고 오늘이 정식으로 오는 마지막이라고 말씀 드렸다. Host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소식에 당황하시기도 하셨다. 그만큼 우리도 짧은 시간 동안 각자 나름대로 그들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에 헤어지기 쉽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태국 타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잠시뿐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밥하고 밥 먹고, 같이 자고, 살면서 다들 Friends of ASia를 느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Khun Khun Khrab!!



2. Coordinator 변경





블리안 2. Coordinator 변경

Coordinator 변경

12월 라온아띠 태국팀 Coordinator가 변경 되었다.

P' Yo는 라온아띠 태국팀 1기 부터 10기까지 짝 Coordinator 역할을 맡아온 산캄팡 YMCA Staff이다. 이번 10기도 9월 달 처음 태국에 와서 P' Yo와 11월 말까지 일을 함께 해왔다.

Coordinator가 바뀌게 된 이유는 Coordinator인 P' Yo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YMCA 일을 그만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 라온아띠 태국 팀이 아쉬운 점은 공식적인 작별인사도 없이 헤어졌다는 것. 그리고 태국 YMCA에서 먼저 Coordinator가 바뀌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팀 적으로 Coordinator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걸 어느 기수든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한다.

이 시점에서 Coordinator 변경은 아쉽고도 허탈한 부분이 많았다.

12월 부터 새로운 Coordinator는 SKP YMCA Staff인 P' Ton, P' Mom이 맞게 되었다. 두 Staff 역시 라온아띠 태국팀 1기 부터 10기까지 같이 일을 해온 Staff으로써 라온아띠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알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Coordinator로써 적임자일 듯 하다.

3. New School & Home-Stay

백리안 시도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Wat Sri Bang Wan 학교에서 새 출발

12월 11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모험일 수도 있는 학교와 홈스테이 변화의 그 첫 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도착한 Wat Sri bang wan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된 “환영합니다”란 문구들을 흔들며 우리를 반겨줬으며 우리도 한국의 전통 악기, 장구를 치며 새 출발을 알렸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1. Wat Sri Bang Wan 학교

Wat Sri bang wan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70여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다. 아침마다 학교 전교생과 유치원 원아들이 모여 조회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이 학교에 와서 신기하게 여겼던 점은 Wat(절)이 바로 옆에 위치한 독특한 구조였다. 그 영향 때문인지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Wat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지만 또랑또랑 학생들이 외치는 불경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2. 수업

학교에 와서 배정받은 수업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1,2,3학년으로 구성된 한 반과 4,5,6으로 구성된 한 반을 맡았다. 우리가 가르친 과목은 태권도, 한국어, 영어, Art였다.

특히 아침 조회마다 “안녕하세요, 힘내!, 밥 먹자!” 등 한국어 한 문장씩을 알려줬는데 실생활 용어여서인지 곧잘 기억해냈다. 애들이 외치는 “힘내!” 한 마디에 힘든 것도 샤르르르.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1) 태권도

태권도 수업은 지난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었다. 하지만 애들 통제와 의사소통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이 어려웠을 겪었다. 이번 왓 시방완 학교에서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야외 수업 전 태권도에 필요한 기본 용어를 교육하였다. 그 결과 야외 수업에서 진행과정은 훨씬 수월했으며 학생들도 잘 따라왔다. 비록 2번의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이 곧잘 따라 하여 뿌듯한 수업이었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2) 한국어

지난 학교 때에 비해 우리의 교사능력도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수업은 바로 한국어 수업이었다. 색깔, 동물,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등 매 수업마다 테마를 정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곧잘 기억하여 학생들이 익명의 팀원에게 한국말로 “돼지”라고 놀리는 등 다소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아침조희 때마다 선생님들이 물어 보는 질문에 한국말로 곧잘 대답하는 모습에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고마웠다.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3) Art

Art수업을 하면서 한국어 수업을 병행했는데 학교에 Art 수업이 없어서인지 아이들이 4시가 넘었음에도 다 완성이 되고 하교를 하는 등(선생님이 외치는 “갑 반!(집에 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엄청난 집중력과 열정을 보여줬다. 특히 그 당시 곧 다가 올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 한국 복 주머니 접기와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또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만들기에 열정이 다 소진돼서 인지 수업 이후 청소는 우리만의 몫이 됐다. 그러나 아이들이 한국어로 적어 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덕분에 이번 년도의 끝 그리고 2014년도의 시작이 따뜻했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4) 전 학교 그리고 현재 학교



1. 우리들이 생각한 전 학교에서의 문제점?

- 수업과 놀이의 구분이 없었다.
- 수업 수가 많아 우리들에게 너무 버거웠다.
- 선생님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2. 현재 학교에서 우리가 달라진 점은?

- 학생들에게 우리가 선생님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 야외에서 학생들과 뛰어 노는 횟수를 줄였다.
- 선생님과 좀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 학교에서 주신 새로운 기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3. 이에 대한 아씨의 고민?

- 애들과 친하게 지내고 수업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전 학교 선생님들이 방치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일까?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3. 벽화

학교에서 우리가 멋지게 한 일 중 하나는 바로 학교의 형사뭇(도서관)을 변화시키기였다. 벽의 페인트가 벗겨져있는 도서관의 외벽에 벽화를 그려 넣기로 했다. 하지만 벽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 생각보다 많은 창문과 넓은 벽면,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간 끝에 우리 팀의 Art의 재능이 있는 선별기 단원이 수합한 스케치로 디자인이 완성됐다.

학생들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벽화를 도와줬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니 수월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월 3일. 'Friend of Asia'를 뜻하는 벽화가 완성됐다! 태국과 한국의 국기, 사람들, 국화, 글자 등이 어우러진 벽화를 보며 이 추억을 그리고 친구가 된 우리를 기억해주길 바란다.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벌리안 시도

4. 경험

학교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태국 그리고 람퐁이란 지역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완 퍼레이드]

처음 학교에 와서 경험했던 행사는 일년에 한번 있는 학교 퍼레이드의 날 이였다. 단순히 한 두 개 학교가 참여한 퍼레이드가 아닌 람퐁의 많은 학교(약 20개)가 참여한 대형 퍼레이드였다. 학교 깃발을 선두로 각 학년마다 요정, 농부 등의 테마로 코스프레한 아이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도착지점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운동회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기회로 이 퍼레이드의 날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태국악기 배우기 & 태국음식, 팍 카나 만들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주신 기회로 태국 야채인 팍 카나를 직접 따서 음식을 만들고 선생님, 학생들과 같이 먹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학생들은 태국 전통악기를 배우는데 우리도 같이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전통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우리 악기를 사랑하고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벌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벌리안 시도

[카웃카이, camp 참여]

일년에 한번 4,5,6학년 학생들은 한국의 걸/보이 스카우트 개념의 CAMP를 간다. 라온아띠는 좋은 기회로 이 CAMP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3일 동안 식물, 동물에 대한 공부를 한다. 특히 돼지와 개구리를 키우는 방법, 가축의 똥을 이용하여 가스를 만드는 방법, 버섯 기르기, 닭을 이용한 생선 기르기 등 올바르게 이롭게 자연 생태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었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5. Home-Stay

12월 11일 우리들의 두 번째 홈스테이가 시작 됐다. 어떤 이유가 됐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레기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번에는 2개의 홈스테이로 나누어 져서 한쪽은 남자 단원 2명이 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여자 단원 2명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번 홈스테이 기간(두달 간 매주 3일간 머무는 일정)과는 다르게 10일 동안 짝 머물다가 5일 산캠프 YMC A에 있다가 다시 7일간 머물게 되는 17일 일정이다.

새로운 지역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는 라온아띠 태극팀의 홈스테이 어디 한번 살펴보자~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1) Ton Phai & Ton Khun's Family

(1) 퍼완 & 매닛



퍼완은 우리 집의 가장이다.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며 매닛의 일도 도와주신다. 안타까운 점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신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3명이라는 점... 그래도 현재 살고 있는 매닛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패스(히히^^) 집에 아주 큰 연못이 있고 닭을 키우셔서 생선과 달걀을 매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신다. 덕분에 형과 나는 매일 맛난 생선과 달걀을 먹는다. 자상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셔서 주변 이웃들과 많이 만날 수도 있다.

매닛은 우리 집의 어머니다. 행주를 만들어 파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집안 한쪽 구석에는 행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이 많으셔서 매일 저녁 주변 이웃 친구들이 찾아와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도와 밥을 한다. 우리도 이 때문에 다른 이웃 어머니를 많이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 하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힘들 때도 있지만)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놀러 가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어디 갈래?’, ‘무엇 먹고 싶니?’, ‘어디 아프니?’ 등의 말썽을 자주 하신다. 이처럼 한국의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자주 생각나게 만드는 분이시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1) Ton Phai & Ton Khun's Family

(2) 녀 뻘



녀 뻘은 우리 집 동생이다. 12살, 5학년이다. 우리는 녀 뻘과 같이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러 다닌다. 항상 밝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같이 논다. 태국의 전통 피리를 정말 잘 불어 우리를 가르쳐 주기 까지 한다. 얼마 전 생일을 맞아 같이 생일 파티도 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을 때 같이 무가타라는 태국 요리를 같이 해먹기도 했다. 아직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녀 뻘과 함께 짧지만 큰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2) Dok Khem & Ton Yong's Family

(1) 퍼 띠 & 매 째



무적의 슈퍼맨 아버지 퍼띠! 람퐁 시내에 위치한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고 주말이면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의 태국어 선생님까지 겸하고 있으시다는 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점은 우리 아버지는 교육열이 엄청 높은 선생님이시라는 점~! 또한 우리들과 한국에 관심이 많으셔서 속사포 랩처럼 질문을 쏟아 부으실 때도 많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사오시기도,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시려는 퍼 띠. “툑 완 쿡쿡 카!(항상 감사해요!)”

매 째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매 째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손재주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뜨개질 한 줄도 끄끔거리며 한 시간을 잡고 있을 때, 매 째는 딸기, 호박 등 바로 똑딱! 무엇보다도 음식을 파시는 일을 하시는 만큼 음식 솜씨도 엄청나시다. 또한 항상 키끼약(게으른)한 우리들을 위해 “땀용, 돛캠 낀 카우~!(밥 먹자)”를 외쳐주신다. 이런 터에 처음에는 부지런하시고 친절하 어머니로만 생각했는데, 부부는 닦아간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의 태국어 공부에 선생님이로 참여하시면서부터 숨겨왔던 교육열을 발산하고 계신다.



별리안 3. New School & Home-Stay 그리고 별리안 시도

2) Dok Khem & Ton Yong's Family

(2) 녀 마별랑



12살 소녀 **마별랑**은 동네 골목대장 소년 같은 모습을 한 새침때기 소녀다. 항상 “dotkhem, ttanyong set rkyang? bbae-i tiau-u ti sa namgilra!(다 끝났어? 운동장에 놀러가자!)”를 외친다. 매일 사남길라에서 뛰어다니고 웬만한 남자애들보다도 씩씩해서 처음에는 소년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질투하고 벅지기도 하는 귀여운 새침때기 여동생이다. 21살, 23살 언니들을 챙기느라 시장에서는 “어서 와!” 밥 먹을 때는 “이거 맛있어!”를 달고 사는 언니 같은 동생이다.



4. Visa Trip in Chiang Rai



A VERY WARM WELCOME

ยินดีด้วยทุกท่าน

RAONATTI 10

3 DECEMBER 2013

CHIANGRAI YMCA



별리안 4. Chiang Rai Visa Trip (12.02~12.04)

(1) Chiang Rai YMCA 방문

12월 2일 Visa Trip으로 치앙라이 YMCA를 방문하게 되었다.

치앙라이 YMCA는 치앙마이 YMCA와 마찬가지로 호텔 운영, language school 운영, Child Camp and Care 그리고 Elder People Care, HIV Project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중점적인 Campaign으로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 치료와 사회 복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2) 구순구개열(CLP) 환자 치료와 사회 복귀 프로젝트

이 세상에 있는 100만명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개파열이라는 장애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말하고 그리고 듣는 일이 힘들다고 한다. 많은 환자들이 성형수술, 외과수술 또는 언어치료와 같은 필요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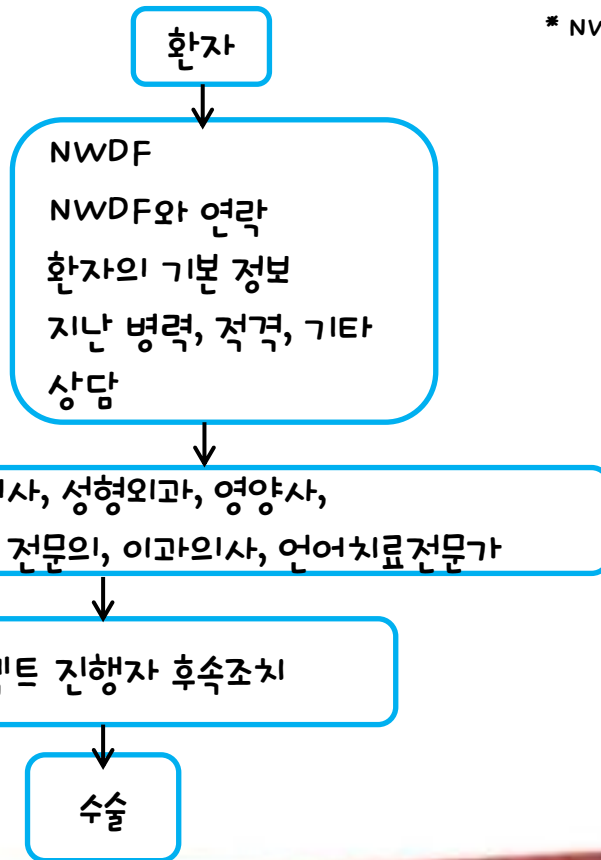
치앙라이 YMCA는 환자들을 Care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이외에 그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별리안 4. Chiang Rai Visa Trip (12.02~12.04)

(2) 구순구개열(CLP) 환자 치료와 사회 복귀 프로젝트

구순구개열 치료 서비스의 흐름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기부 방법!

* NWDF : The Northern Women's Development Foundation

계좌명 : Cleft Lip and Palate
 계좌번호 : 159-2-4-8041-3
 은행명 : Kasikorn Thai Bank,
 Ratchawong Branch,
 Chiangmai Province Thailand
 Swift Code : KASITHBK

NWDF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찾아 제공하고 마케팅과 작은 벤처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미얀마와 라오스로 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블리안 4. Chiang Rai Visa Trip (12.02~12.04)

(3) 미얀마 VISA TRIP

해외에서 체류한지 3개월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VISA로 인해 미얀마로 VISA TRIP을 떠났다.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강을 앞에 두고 3개의 국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Golden Triangle도 있다. 라온아띠는 이번 TRIP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국경 지역이라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지만 YMCA Staff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별리안 4. Chiang Rai Visa Trip (12.02~12.04)

(4) Chiang Rai YMCA Love & Care Project

치앙라이 YMCA는 Chiang Mai YMCA와 마찬가지로 Love & Care Project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와 YMCA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운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Visa Trip을 통해 치앙라이 YMCA를 방문한 라온아띠 태극팀도 Love & Care Project를 참여할 수 있었다.

방문한 세 가정 중 두 가정은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한 가정은 할머니 홀로 두 손자를 키우시는 가정이었다. 라온아띠와 YMCA는 간단한 생필품과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에도 웃음을 잊지 않는 그들에게서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Christmas in Thailand

블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Christmas in Thailand

올해 크리스마스는 라온아띠 태국팀의 그간의 크리스마스와는 달랐다. 작년을 생각해보도 누군가는 친구와 보냈고 누군가는...군대에서 보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3년 라온아띠 태국 팀이 태국에서 보낸 특별한 크리스마스 속으로 들어가보자~



별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1. Christmas in 산캄퐁 YMCA

첫번째, 산캄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선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우리도 홈스테이에 있으면서 조금씩 준비한 크리스마스 율동과 캐롤을 공연하였고 수진 단원은 산티로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파티의 끝엔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행복하게 끝을 맺었다.



블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2. Christmas in 사오힌 YMCA

바로 다음 날, 사오힌에서는 더 큰 파티가 열렸다. 사오힌은 수백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파티였다. 산캄펑과는 달리 사오힌에선 선생님들이 각각의 특색있는 부스를 열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파티였다. 우리 라온아띠도 우리만의 스테이션을 기획했다. 한국의 느낌이 묻어나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회탈 만들기와 복 주머니 만들기를 했다. 결과는 성황이었다. Y스텝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좋아했고 우리도 덩달아 더욱 즐거웠던 파티였다.



별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3. Christmas in 시방완 School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우리 학교인 시방완 학교에서도 파티를 했다. 학교 파티는 라온아띠가 죽가 되어 진행되는 파티였다. 우리는 짧은 태국어 실력으로 초선을 다해서 게임도 준비하고 하회탈만들기 활동도 하며 YMCA에서 준 선물들을 나누어주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됐다.



별리안 5. 태국에서 맞는 Christmas



4. Christmas in 산티탐 YMCA

산티탐에서도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선 YMCA 스텝들의 단합대회가 한창이었다. 우리도 파랑 팀에서 응원도 하고 같이 게임도 참여하면서 열정적으로 단합을 도모했지만...!!졌다. 그래도 그 후에 이어진 파티에선 스텝들과 함께 준비한 춤을 추면서 즐겼다. YMCA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큰 파티라 그런지 더 돈독한 기분이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함께 준비하는 파티가 못내 부럽기도 했다.





6. Our 12월 **뿌리** 리안



Ton Phai's **블리안** 1



믿음 그리고 불안감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적다고 예전부터 생각 해왔다. 아무리 믿고 의지해 왔던 사람이 이었어도 그 사람의 한 순간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금 태국에 자원활동가 라온아띠(Friends of ASia)로서 약 4개월간 살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다. 아직 나는 아시아와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한 것 같다.

얼마 전 태국인을 믿지 못하고 한 행동이 있다. 물론 상황이 그랬고 약간의 불안감이 더해져서 했던 행동이었지만 역시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행동이었다. 그 행동 이후 그 상황에서 벗어나 차분히 혼자 생각을 해본 결과 불안감에 이른 판단을 내려 오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후회를 했다. “내가 왜 그랬지?”

아직도 그들과 다른 외국인이라 인식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니 이곳 생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어렵다. 두렵다.

신뢰 부족한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았다. 모든 행동 전에 그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성격으로 인해 확신감이 들기 전까지 믿기 어려워 한다. 불안감, 없애고 싶은 존재이다. 이 불안감으로 인해 나의 온전한 생활을 못한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자신, 가족까지 믿지 못할 까봐서 이다. 라온아띠를 지원하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어려운 것 또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런 내면의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들여내고 싶다. 이게 지금 내 첫 번째 소망이다.



Ton Phai's **블리안** 2



소통의 즐거움 그리고 그 이면

태국에 약 4개월 살면서 영어보다는 태국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 물론 태국어 실력이, 천천히지만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도 몸소 느낄 때도 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네', '태국어 하니까 날 칭찬해주시네' 등등 점점 태국어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 이곳 생활을 하면서 친근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잘 하지 못했던 나로서는 놀랍게도 친한 사람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사람들과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다. 물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재미있을 때가 더 많다. 분명 한국이었으면 어색했을 것 같은 말도 이곳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잘 한다. 한마디로 요즘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면 이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태국어야 계속 이어서 공부하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소통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버릴 것만 같았다. '소통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어느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 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 이야기 하기 싫은 상황은 언제인가' 고민 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알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 결과 내 관심사,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 할 때의 차이, 별 고민 없이 만나는 상황이나 아니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느낄 것이다. 다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소통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모델이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던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 즐거웠으면 좋겠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면 지금의 나는 소통의 즐거움을 극히 사람에 따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람도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지금 두 번째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소통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Ton Yong's **블리안** 1



의식주

어떤 것들이 변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4개월을 통해 변한게 정말 변한 걸까. 군대에서 2년 동안 부지런하게 생활하던 친척오빠가 제대한지 단 1개월 만에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후문을 들었던 것처럼(^^;;) 나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변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 '나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혹은 '좀 더 성숙한 계기가 됐어요' 식의 두루뭉술한 부분 말고 우리의 중요한 3요소 '의식주'로 한 번 들어 가보자. 먼저, '의'. 태국에서 나는 어느 샌가 TV에서 나오던 패션 테러리스트 중 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 한국에서 늘 즐겨 입던 다리를 가늘게 보이게 했던 검은색 레깅스보다 활동에 편한 검은색 다 떨어진 냉장고 바지가 좋아졌고, 내 무거운 몸을 발 하나로 지탱하게 했던 힐에는 어느새 패인트가 물들어진 운동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들 놀라운 게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내 스스로는 가장 놀란 건 '식'이다.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무척 좋아했던 나기에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던 태국 음식.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항상 먹던 된장찌개에 밥을 먹는 것처럼 아침마다 투김을, 일상에서 팍치를 먹고 있다. 지역 음식과 '아카' 등의 부족 음식도 즐겨 먹진 않지만 한 번씩 먹는 외식 같은 존재가 됐다.

하지만 가장 적응이 어려웠던 건 사실 의식주 중 '주'다. 내가 살던 곳은 한국의 어느 집처럼 따뜻한 물이 콧물 나오고 따뜻한 바닥에서 글을 가먹으며 TV를 볼 수 있는 아파트였다. 반면 태국에서의 '주'들은 내가 살던 그곳과는 사뭇 달랐다. 찬물만 나오는 수도, 샤워기를 이용하지 않는 태국사람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의 많은 벌레, 동물들과의 동침까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벌레를 보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 조금은 강인해(?) 졌다고 말 할 수 있겠다.



Ton Yong's **블리안** 1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하듯 이렇게 나의 의식주도 조금씩 변해갔다. 간혹 사람들은 의식주가 변하는 게 무
그리 큰 대수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내가 생각했던 ‘여느 집, 여느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테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주가 바뀌면서 내가 같
이 사는 사람들도 바뀌었고, 의식주가 적응되면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한국사람, 태국사람의 경계가 허물
어지게 됐다. 의식주를 함께 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서 “키툽(보고 싶을 거야)” 혹은 “감사합니다”를 외치
며 평평 울기도 했다. 어느 샌가 쿤 타이(태국 사람)가 내가 됐고 쿤 까올리(한국 사람)도 나고 쿤 아시아도 내가
됐다.

난 아직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벌레를 무서워하는 어린아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 질투
하는 못난 사람이다. 하지만 이 못난 사람도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해준, 나를 받아준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툽 완 쿤 쿤 막막 카.(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Dok Khem's **블리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 마을을 떠나면서 얻었던 슬프고 아쉬운 감정이 많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환영과 따듯한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전 마을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이곳에 와서 많이 희석되었다. 전학교 선생님들이 갖는 기대에 압도되어 부담감이 커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시기에 우리, 나 자신도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었다.

그런 즐거움과 감사함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도 지쳐가고 있는 것 같다. 뭘지 모르게 몸이 힘들어서 힘든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몸도 힘든 것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는 것에 임하는 자세는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그 이외의 시간에 갖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과는 달랐다. '대화일까? 이게?' 라는 생각. 예전에 태극어를 하나하나 배우 말하는게 재밌고 홈스테이 아버지로 부터 읽는 것을 배우고 쓰는 것을 배우서 지금은 아주 조금씩 읽고 쓸 수 있어 재밌었지만 지금은 그 전만큼 즐거운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말하는 것의 폭이 넓지 못하고 표현의 폭도 넓지 못한게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분명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뭘가 모르게 답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지치기도 한다.

휴가 때에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혼자만의 시간이 좀 간절했던 것 같은데, 사실 혼자라도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나 계획은 없었다. 그냥 생각을 좀 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제 정말 딱 한 달이 남았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여전히니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마무리를 잘하고 가고 싶다.



Ton Khun's **블리안**



느지막이 찾아온 뜨거움

어느덧 4번째 느낀 점을 적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 만큼 내 생각도, 아띠들의 생각들도 블록 쌓듯 하나 하나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모래성을 쌓듯 한땀 한땀 이곳에서의 좋은 기억을 만드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순간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참 속상하고 이곳에서의 이유를 잃고 방황하곤 한다. 요씨(전 코디) 덕분에 미워하다 지나버린 3개월이 아쉬워 중간 평가를 통해 “정말 뜨거운 시간 한번 보내고 와” 보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선생님께서 베풀어 연 저녁 식사자리에서 우리 팀에서 나 혼자 참여하고 전에 이 학교를 일주일 방문했던 싱가포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선생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내 가슴을 이리 후벼 팔 줄은 몰랐다. 한국인은 말을 술술 해버린다는 등, 한국인은 보이는 것마다 있다는 등 없다는 등, 한국에는 이게 있니 등등 자랑스럽게 싱가포르 학생들 앞에서 말씀하셔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로 정색하며 한다는 말씀이 “이해 못 하는게 더 나아”. 나 참, 3개월 지난 애한테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라니, 참 어이가 없기도 속상하기도 너무 있기 싫은 상황이었다. 그제서야 내가 태극에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 속에 와 닿았다.

그렇게 외로움에 사무쳤던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홈스테이 어머니께서 내게 오셔 “어제 속상했니?”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뜨거웠다. 정말 뜨거운 순간이 내게도 왔구나, 그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이 지금까지 지냈던 시간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겨울, 태극에서 그리고 10일 밖에 안되는 가족에게서 따듯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번외. 우리가 태국에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번외. 우리가 태국에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12월 한 달간 우리는 치앙마이 여행을 주로 했어요. 누구는 한국에서 단원의 부모님이 오시고 누구는 동생이 오면서 서로 가이드가 되어 여행을 다녀왔죠. 매번 YMCA의 차량만 타고 다니다가 직접 다녀보니 오히려 재밌고 드디어 치앙 마이가 눈에 들어 오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달은 다른 어느 달 보다 우리 스스로 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행, 학교 수업, 활동 만들기 등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직접 발로 움직였죠. 개달은 점은 어떤 변화의 환경이든 부딪혀 보는 거예요. **빨리안!!**

